영화 '블라인드'의 그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사실, 김하늘은…

새침데기 같은데 털털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엔 당할 자가 없으며
진중한 연기에 더 매력 느끼는 욕심쟁이
그리고 연애는 간절하지 않다고 덤덤히 말한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실감했다. 연기로 표현해내는 캐릭터가 살갗처럼 몸에 와닿기는 쉽지 않은 법. 눈을 뜬 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캐릭터를 연기하기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절실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이처럼 진중한 캐릭터를 연기한 게 얼마 만인가. 2004년 공포영화 '령'과 멜로영화 '빙우' 이후 처음인 듯싶다. '7급공무원' '6년째 연애중' '청춘만화', 더 거슬러올라 '그녀를 믿지 마세요'까지 로맨틱한 이미지로만 비친 듯한 경험 속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긴 했다.

8월11일 개봉하는 영화 '블라인드'(감독 안상훈·제작 문와쳐) 속 시각장애인 역은 하지만 '꼭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일 것 같았다. 뺑소니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각장애인.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만 사건 현장에 대해 증언하고 진술해야 하는 시각장애인과 또 다른 목격자가 펼쳐내는 연속되는 긴장감의 이야기. 그래서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캐릭터였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단순히 매력 있는 혹은 사랑스러운 캐릭터였기 때문이 아니다. 해야 하고, 하고 싶고 그래서 더더욱 해야만 하는 캐릭터가 있는 법이니까. 직전의 드라마 '로드 넘버 원'이 남겨준 잔향도 영향을 미치긴 했다. 전쟁통의 와중에 가슴 아픈 사랑에 빠져들었던 여자. 그 진중한 정서를 어느 정도 더 가져가고 싶었던 욕망. 이젠 좀 더 정교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블라인드'의 촬영이 끝나던 날, 얼마나 짜릿했던가. 스스로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더욱 치밀해야 했다. 연기를 펼치는 촬영의 현실에선 눈으로 보지만, 설정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다. 채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 못하는 이의 고통과 외로움, 그러면서 겪어내야 하는 잔인한 사건의 와중에 수없이 '잘 할 수 있을까'란 질문도 던졌다. 그런 끝에 '해내고 말았다'는 쾌감에 짜릿했다.

잠시 잠깐, 허술한 구석을 드러낼 때 느껴지는 막막함도 없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늘 그래왔던 게 아닐까. 그래도 그 허술함이란 스스로 채근하지 않고, 쪼지 않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움일지 모른다.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서인 까닭일까. 그래서 간혹 차가운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므로 괘념치는 않는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질색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더욱 좋으련만.

데뷔 직후의 어린 시절엔 미처 알지 못했던 주변에 대한 고마움. 서로 잘 되기를 바랄 터인데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 속에도 이성의 친구가 있을 터이지만, 아직은 그럴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애를 해본 지 언제던가. 하지만 또 그렇다고 간절하지도 않으니, 어쩔 텐가.

그래, 모든 일에 간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왜냐고? 겁이 나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곧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망한 날도 숱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해진다면 그 간절함의 실체, 무엇보다 일상의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날까.

그 간절함으로 울어본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고통이었음을 알게 된 것도 오래지 않는다. 그 어린 시절 대체 왜 그토록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 울어도, 울어도 해소되지 않았던 그 무엇. 그래서 간절함은 더 이상 올가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다행이다.

오해하지는 마라. 세상과 사람과 일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게 아니므로. 그런 기대감 마저 없다면 건조해서 세상을 어찌 살 텐가. 다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해져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 나는 김하늘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김하늘은 영화 '블라인드'에서 시각장애인 역을 맡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캐릭터"의 매력을 드러낸다.
국경원 기자 | onecut@donga.com 트위터@k1isonecut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연예뉴스 스테이션

美 언론들 "'코갓탤' 최성봉은 한국판 수전 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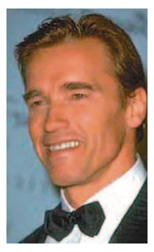
최근 화제를 모은 '코리아 갓 탤런트' 출연자 최성봉(사진) 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어 CNN의 전파를 탔다. CNN은 21일(한국시간) 케이블채널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한 최씨를 "한국판 수전 보일"로 부르며 전 세계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최 씨의 공연 모습이 공개됐고 이를 본 누리꾼이 전 세계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의 노래 실력과 함께 3세 때 고아원에 버려진 뒤 온갖 고생을 겪고 자란 가슴 아픈까지 소개되면 화제를 모았다.

최성봉 CNN보도 보기

권리세·데이비드 오, 스마트한 연인…동반 광고 외출

'신혼부부' 권리세와 데이비드 오가 스마트폰 광고모델로 호흡을 맞췄다.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의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3D 광고 모델로 발탁돼 최근 촬영을 마쳤다. 연인이란 설정으로 광고 촬영에 나선 권리세와 데이비드 오는 휴대전화를 통해 사랑을 키우는 모습을 연기했다. 권리세와 데이비드 오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도전해 최종 라운드인 톱12 안에 진입해 주목받은 신인. 경합이 끝난 뒤 '우리 결혼했어요'로 무대를 옮겨 가상의 결혼생활을 꾸려가며 인기를 얻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김지운 감독 할리우드 데뷔작 주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사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 할리우드 데뷔작에 출연한다. 21일 할리우드 리포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지운 감독은 '라스트 스탠드'로 할리우드에 진출하며 주연배우로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캐스팅했다. 마약 조직의 보스와 보안관 등이 맞서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그 주연으로 나서며 오랜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풍산개' 결국 스크린 독과점 희생양…3개관서 상영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영화 '풍산개'가 대작들의 잇따른 개봉에 결국 거의 모든 상영관을 내주고 말았다. 영화진흥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현재 '풍산개'는 3개관에 불과하다. 특히 '고지전'과 '퀵'이 개봉하기 하루 전인 19일 100여개관에서 21일 3개관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이날 현재까지 누적관객 70만여명을 불러모으며 '작은 영화의 힘'을 과시해온 상황이어서 관객들의 아쉬움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 'G.I.조 2' 촬영 위해 미국으로…

톱스타 이병헌(사진)이 할리우드 영화 'G.I.조 2' 촬영을 위해 2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소속사측이 밝혔다. 채닝 테이텀 등과 함께 전편에 이어 호흡을 맞출 이병헌은 2편에서도 스톰 쉐도 역할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이병헌은 8월15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첫 촬영에 나서며 영화는 2012년 여름 시즌에 개봉한다.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21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시차 적응과 함께 캐릭터 분석 및 촬영 준비 시간을 갖고 영화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화 'G.I.조 2'는 '스텝업 3D'를 연출한 존 추 감독이 배우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미쓰에이 뮤비, 유튜브서 200만건 핫 클릭

4인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해 눈길을 모은다. 화제의 신곡은 '굿바이 베이비(Good-bye Baby)'. 18일 유튜브에 공개된 뒤 3일 만인 20일 200만 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유튜브 '많이 본 영상' 3위에도 올랐다. 미쓰에이는 18일 새 앨범 '에이 클래스(A Class)'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굿바이 베이비'로 활동에 나섰다. 직후 국내 각 온라인 음악차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미쓰에이는 21일 케이블채널 M.net '엠카운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송 활동에도 나선다.

스타, 그때의 오늘

1997년 장선우 감독 '나쁜 영화' 상영 금지

1997년은 아마도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외설과 예술의 커다란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난 해일 터이다.

그 해 7월1일 청소년 유해매체 규정 등을 핵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더욱 불거진 간극은 영화 등에 대한 심의 결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미 왕자웨이 감독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이 수입불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해 오늘,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가 공연윤리위원회(공륜)로부터 등급외판정을 받아 상영 금지됐다.

'나쁜 영화'는 10대들의 일탈적인 삶과 일상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촬영한 새로운 형식의 영화. 평단에서는 그 새로움과 주제의식에 호평을 보냈지만 검열의 벽은 높았다.

공륜은 "집단윤간, 포르노에 가까운 정사장면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일반 극장 상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정했다.

만화가 이현세가 '천국의 신화'로 음란 폭력만화 유통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작가 장정일은 ' 내게 거짓말을 해봐'로 구속된 뒤 풀려난 때였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과 10대들의 음란물 촬영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빨간 마후라' 사건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외설과 예술의 경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나쁜 영화'는 결국 7월29일 윤간장면 등 25분 분량을 삭제한 뒤 재심의를 요청,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고 8월 개봉했다.

'나쁜 영화'는 주연한 실제 10대들의 이야기 속에서 노숙자 역할로 송강호, 기주봉, 안내상 등 배우들이 깜짝 출연해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공연 랭킹

7월 15일~7월 21일 자료:인터파크

2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조승우·홍광호
2	뮤지컬 〈잭더리퍼〉	신성우·유준상
3	뮤지컬 〈삼총사〉	신성우·유준상
4	뉴보잉보잉 1탄	설주미·황유진
5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정글포스	-
6	가족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
7	여름방학공연 〈어린이 돈키호테〉	-
8	가족 뮤지컬 〈피터팬〉	-
9	뮤지컬 〈늑대의 유혹〉	김려욱·김산호
10	썸머 클래식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8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비특약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